

## 충남 인권심포지엄 토론문

2014. 12. 16

한겨레신문사 사회2부 전진식

- \*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의 발제대로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. 인권은 권력자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.
  
- \*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의 발제에 공감한다. 중앙-지역의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.  
충남도에서 지난 10월 선포한 충남도민인권선언문과 인권증진 기본계획이 문서로 그쳐서는 안 된다. 바깥에 내리는 눈처럼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권 대책이 필요하다. 그리고 도민인권선언과 인권증진 기본계획 모두 개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. 충남도의 인권정책은 이제 첫발을 뗄 것에 불과하다.
  
- \*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에는 석면광산에 자리한 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10년 넘게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. 인권의 관점에서든 여러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. 엇그제 14일 이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 한분이 돌아가셨다. 3년 전 석면폐증 2급 진단을 받은 분이다. 충남도가 올해 3월 직무이행명령을 청양군에 내렸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. 도지사와 군수가 더 적극적으로 사안을 들여다보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.